

일본 최초의 종합대학 ... 2만5천명 재학

# 東京대학교

본지는 '세계의 명문대학 순례' 난을 신설하여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한 대학을 집중 조명한다. 이번 호에는 1877년에 설립된 일본 최초의 종합대학인 동경대학교를 찾아본다. <편집자>

동경대학교는 1877년 설립된 일본 최초의 종합대학으로서 일본의 대학중에서 최고로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립대학이다. 동경대학의 전신은 1855년에 설립된 동경개성(開成)학교와 1858년에 설립된 의학교(醫學校)로서 설립 당시는 법학, 이학, 의학, 문학의 4개 학부가 설치되었다. 당시 일본은 각 관청별로 법학교, 공학교를 설치하여 관청의 업무와 연결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었으나, 일반성이 강한 고등교육기관(전학과 겸비)의 필요성에 의해 동경대학교가 탄생되었다.

## 10개 학부 · 11개 대학원 연구과 분류

그러나 설립 당시는 서양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어의 습득, 국제 정책입안에 필요한 외국정세의 탐색, 부국강병을 위한 서양의 선진학문 습득 등이 주요한 교육목표가 되었고, 교육도 서양교사에 의한 외국어 교육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서양학교로서 인식되었다.

그 후 동경대학교의 명칭은 동경대학교에서 제국대학교(1886년), 동경제국대학교(1897년)로 변경된 뒤 1951년부터 다시 동경대학교로 변경된 이래 연구성과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교육이념을 가지고 인재 양성에 주력해 오고 있다.

현재의 동경대학교는 10학부(법학, 의학, 공학, 문학, 이학, 농학, 경제, 교양, 교육, 약학)와 11개의 대학원 연구과(인문 사회, 교육, 법학 정치, 경제, 종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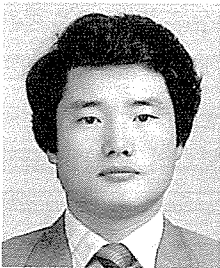
화, 이학, 공학, 농학 생명, 의학, 약학, 수리과학) 이외에 의학연구소, 우주항공연구소, 역사자료 편찬소 등을 비롯한 30여개의 부속 연구소와 연구센터가 있다.

또한, 이들 연구소의 부속 시설로서 병원과 부속 중·고등학교, 식물원, 목장, 실험소, 관측소 등의 방대한 시설이 북단의 홋카이도에서부터 남단의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국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 이들 시설중 동경의 근교에는 동경대학교의 본부와 대부분의 학부가 위치한 홍고지구와 농학부 및 지진연구소가 위치한 야요이지구, 교양학부가 위치한 고마바지구 등이 있다.

동경대학교의 학부과정은 문과와 이과가 각각 일류(一類)~삼류(三類)로 나뉘어 신입생을 선발한 뒤 2년간의 전기(前期)과정(교양학부)의 학습을 의무화시킨다. 전기 과정이 끝난후 문과일류(법학부), 문과이류(경제학과) 및 이과삼류(의학부, 의학과) 이외에는 본인의 희망과 전기 과정의 성적에 의해 전공을 선택하여 전문교육의 후기(後期)과정이 이루어 진다.

## 교수 2천4백여명 ... 장서 7백만권

1·2학년의 전기과정 성적으로 희망학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매년 10% 정도의 학생이 후기과정에 진학하지 못하고 교양학부에 남아있는 실정이다. 학부과정에서 대학원으로의 진학은 타 학부에의 진학도 허용되나 1년간의 연구생과정이



김영석 <21세기도시건축연구소 이사>

필수적이다.

동경대학교는 현재 학부학생 1만6천명과 대학원생 9천명이 재학중이다. 이들의 교육은 2천4백명의 교수진과 1천6백여명의 강사 및 조수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학부와 대학원의 수업 및 대학원생의 연구지도는 교수진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공계 대학의 실험은 주로 조수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대학원생들은 TA와 PA (Teaching Assistant, Research Assistant)로 고용되어 학부학생들의 실험과 실습을 지도하고 있다. 대학원 중점대학을 구상하고 있는 동경대학교에서는 학부 졸업생의 약 40%가 석사 과정에 진학하고 석사과정의 약 45%의 학생이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대학원과 교환학생 제도를 설치하여 학생의 위탁 및 수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근의 오차노미즈여자대학, 히도바시대학, 동경공업대학, 사이타마대학 등의 대학원간에는 학점 호환제도를 실시하여 대학원 학생들에게 전문지식의 습득 기회를 넓혀 주고 있다.

동경대학교의 도서관은 홍고지구에 위치한 종합도서관과 각 학부별 도서관 및 부속 연구소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보관중인 장서는 약 7백만 권으로서 종합도서관이 1백만권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학부 및 부속 연구소의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다.

종합도서관과 그 밖의 모든 도서관들은 LILIPUT (Local Integrated Library Information System Project, University of Tokyo)라 불리는 전산네트워크로 온라인화되어 있어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의 서비스시스템으로는 일본의 국회 도서관

에 소장중인 문헌의 CD롬 검색과 전국대학에 소장중인 문헌을 검색하는 학술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학의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교육이념의 일환으로 동경대학교에서는 일반인의 대학참여와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활발히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화·고도기술화 되어가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 사업단을 통한 공동연구, 대학원생간의 교류, 개발도상국과의 학술교류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일반인의 대학참여를 위해서,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인의 재교육 프로그램, 고령화 사회를 위한 생애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관청과 회사로부터 많은 연구생을 받아들여 전문지식을 익히게 하고 있다. 5월제로 유명한 동경대학교의 축제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축제기간도 토요일과 일요일로 정해져 일반인들이 쉽게 축제에 참가하여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편 대학원에는 기업과 회사에 의한 기부강좌 및 기부연구가 설치되어 있다. 공학계 대학원에서는 현재 지구환경공학, 첨단에너지공학, 해양, 바이오테크노, 도시공학, 교통시스템공학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첨단기술과 대학의 전문 지식이 합쳐져 새로운 기술의 창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의학부의 유전자 제어, 세포 시그널 분자제어와 정치학 연구과의 국제 자본



▲일본 학생운동의 상징건물인 동경대 야스다(安田) 강당 앞에서 포즈를 취한 김영석박사(오른쪽에서 두번째)

시장법 등에 대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기부강좌에 대한 기부금 총액이 30억엔을 넘고 있다.

### 한국인 유학생 5백여명 재학중

동경대학은 28개국의 90여개 기관과 국제 교육협정 및 대학간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동경대학에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71개국 2개 지역에서 1천7백80명이 유학중이다. 외국인 연구원도 1천3백85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에 유학·과견중인 동경대학 학생수도 약 2백여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과는 1990년 서울대학교와 국제 교류협정이 맺어졌으며 국제 사업단을 통해 노인보건 의료문제에 대해서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동경대학교에 재학중인 한국인 유학생의 수는 학부와 대학원을 합해 약 5백명 정도가 재학중이다. 이중 공학부에만 1백50명 정도가 유학하고 있어 기술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들이 장차 한국에 돌아와 한국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7